



#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6년 3월 15일 | 총권 38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하2로 267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 왜 헌법을 읽어야 할까요?

국민은 헌법에 어긋나는 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이 주인이고,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권력이 국민한테서 나와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 기본과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이 헌법이고, 헌법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로 나누어서 운영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국민 의견을 대신 해 주는 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고, 사법부는 법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법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이 때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판사와 검사들은 헌법 정신에 맞게 그 권력을 써야 합니다. 곧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 보셨나요?”라고 물어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는 헌법을 읽어서 뭐하느냐고 합니다. 법은 약자 편이 아니라 강자 편이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알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더 나가는 사람은 어차피 헌법대로 하지 않고, 헌법대로 하라고 할 힘도 없고, 자기는 법 없이도 잘 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을 헌법을 모르는 걸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백성들이가요? 아닙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개인 회사에서도 회사 규칙을 정해 놓은 까닭은 회사 주인이 아니라 회사 일을 맡기는 직원들한테 이런 정신으로 이런 규정을 잘 지키면서 회사를 운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뽑아서 일을 맡긴 직원일 뿐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맡긴 직원들한테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니 직원들이 헌법대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심지어 직원들이 마음대로 해도 그게 법인가 보다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무시하는 법을 만들어도 가만히 있고, 행정부가 헌법은 물론 법을 해치는 시행령을 만들어도 그게 맞는가 보다 합니다. 사법부가 헌법이나 법에 어긋나는 판결을 해도 그 사람들이 똑똑하니 맞겠지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는 판결을 해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이 헌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단 한번도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대한민국 주인이라는 대다수

국민이 이렇게 헌법을 잘 모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국민의무교육 기관인 학교에서도 헌법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했으면 당연히 헌법을 잘 배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학생들도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거나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아니라 법과 시행령만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하는 까닭은 국민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을 맡긴 직원들이 헌법대로, 헌법에 따라, 헌법 정신에 맞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국민이 뽑아주고 국민의 이름으로 채용한 직원들이 헌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또 그들이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고, 헌법을 해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이나 시행령을 지키지 않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읽어야 합니다. 우리 겨레는 오랫동안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801년 노비 해방을 시작으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1897년 백성이 주인이라는 선언인 만민공동회, 1919년 3·1대혁명과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1948년 임시정부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에 따라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4.19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10호 헌법은 바로 6월 민주항쟁 성과물로 만든 민주 헌법입니다. 우리는 이 헌법을 지켜야 하고, 이 헌법대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국민의 명령인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나라 일을 맡겨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일꾼을 뽑지도 말아야 하고, 실수로 뽑았다면 해고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할 공무원 선출과 해고는 국민의 권리며 의무입니다. 그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평생 단 한번이라도 헌법을 진지하게 읽어봅시다. 2016년 3월 1일을 기해 우리헌법읽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나누고 있습니다.

**이주영** | 어린이문화연대 대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공동 대표

##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2015 학도넷 겨울연수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그림책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김예선 / 허남정 / 민현영 / 김찬호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http://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mailto:hakdonet@hanmail.net)

# 책을 통한 소통

- 이영선(양청중학교 사서교사)



우리학교 도서관 책들은 주말이면 소풍을 간다. 보드라운 바람에 마음이 살랑거리는 봄부터 높고 푸른 하늘이 매력적인 가을까지 주말이 되면 양청중학교 학생들은 책 바구니들과 돛자리를 들고 학교 인근 공원에서 야외 도서관을 운영한다. 학교 인근에 있는 오창 호수공원은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나들이 온 주민들로 가득하다. 연두와 분홍빛이 가득한 어느 봄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나는 이곳에서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혼자 책 읽기는 소심함에 어색했고 이런저런 고민 끝에 주말 야외 도서관을 생각했다. 잔디밭 돛자리에서 책을 보며 텅굴 거리거리다 공원에서 함께 책을 읽자는 캠페인도 하고 어린이들이 오면 그림책도 다정하게 읽어준다. 가끔은 책 놀이도 하고 책을 노래하는 우리학교 북(book)-밴드 학생들이 야외 북 콘서트 공연도 하는 환상적인 계획이었다.

그 꿈은 이루어졌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오창 호수 공원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 야외 도서관이 열린다. 청주시에서 공원사용 허가도 받아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운영된다. 운영 장소는 그날 비어 있는 나무 그늘 밑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문제는 바로 야외 도서관이 너무 잘된다는 것이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몰려드는 부모님들로 나의 평화로운 공원 독서는 다시 꿈이 되었다. 호기심에 재미있을 것 같이라며 야외 도서관 운영에 참가한 중학생들은 꼬마 손님들 요구에 쉴 새 없이 그림책을 읽다가 목이 쉬어갔다. 나는 악덕 업주처럼 학생들에게 꼬마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라고 잔소리를 늘어놓고 힘들어 잠시 쉬고 있으면 주민들이 책을 고르며 매주 운영하면 안 되냐는 요구를 했다. 이쯤 되면 야외도서관 참가 학생들도 줄고 나도 포기 할만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외도서관 참가를 신청하는 학생들은 자꾸 늘어났다. 학생들이 몰려와 이번

주에 야외도서관을 하는지, 왜 자주 하지 않는지를 따졌다. 그래서 지금은 운영학생을 1회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빨강머리 앤>이 말한 것처럼 세상은 생각한 것처럼 되지는 않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작년 여름방학 직전 뜨거운 날씨처럼 열 받는 일이 생겼다. 날이 더워서인지 신청한 학생들이 반 이상이나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때 학교 구석 그늘에 있던 푸르기 남학생들 무리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더니 따라가면 봉사점수를 줄 것인지 타협을 요구했다. 오늘 야외도서관을 접더라도 이 말썽꾸러기들과는 못한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지만 그래도 기특한 마음 1%가 생기는 바람에 함께 가자고 했다. 그러나 곧 망아지처럼 주위를 뛰어다니는 녀석들을 바라보며 후회가 몰려왔고 그냥 빨리 돌아가기를 바랐다. 그날도 어린이들로 돛자리가 가득 찼다. 나는 다급한 마음에 녀석들 중 한명을 달래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길 부탁했다. 녀석은 책은 죽어도 못 읽는다고 한참을 버티다 어린 아기가 아장아장 책을 들고 다가오자 열결에 옆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게 되었다. 어색하게 책을 읽는 녀석 뒤에서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아이에게 화라도 내면 어찌지? 아니면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멋쩍어 곧 포기할 거라 생각하고 결눈질로 계속 지켜보았다. 그런데 녀석은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점차 추임새도 넣고 말투도 재미있게 하며 읽어나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친구들의 키득거리기도 점차 감탄사로 변해갔다. 그렇게 그림책 2권을 성공적으로 읽은 녀석은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뿌듯한 표정으로 조기 퇴근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친구들도 서둘러 책을 읽어주는 조기 퇴근을 요구했다. 그날은 그렇게 야외도서관 운영을 일찍 끝냈다. 그러나 그 어느 날보다 내 마음도 뜨겁게 뿌듯했다.

이 외에도 책 바구니를 들고 지역 노인요양시설에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그림책이나 옛이야기 책을 읽어드리며 말벗을 해드리기도 한다. 양청중학교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봉사활동을 가면 청소와 함께 공연, 캐리커처, 네일아트 등도 함께 한다. 그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남는 봉사 팀은 그림책 읽어드리는 학생들이다. 이유는 책을 읽으며 이런 저런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매 또는 노환으로 누워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학생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해 어색해하다 서툴지만 다정하게 그림책을 읽어드리면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학생들과 눈 맞추고 이야기 하려 노력하시는 걸 보게 된다. 비록 대화는 할 수 없지만 책으로 소통하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지곤 한다.



# 날마다 아침을 여는 낭독!

- 이태숙(서울 반원초등학교 교사)

평소 책읽기를 좋아하여 해마다 독서교육을 강조하여 지도해 왔다. 독서교육 관련 책을 읽던 중 낭독의 중요성을 알게 된 뒤 좋은 책이 있거나 들려주고 싶은 책이 있으면 관련교과 시간을 이용해 읽어주기를 자주 해왔다. 그러다 2013년 4학년 국어시간에 '양파의 왕따 일기'를 읽어주었는데 의외로 아이들의 호응이 크고 시간도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았다. 이 책의 속편도 있는데 읽어줄 수 있느냐며 책을 빌려온 친구를 보고 낭독의 가치를 발견했다.

다음해 2014년부터 학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책읽어주기를 날마다 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5학년을 대상으로 학기 초 고전 13권을 정하여 읽어주기를 하고 금년에는 3학년을 담임하며 학년 수준을 고려하여 1학기는 날마다 한 권의 그림책을 읽어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다보니 100권을 넘게 읽었다. 2학기에는 독서의 힘을 기르기 위하여 단행본 동화책으로 발전하여 일주일에 2~3권씩 읽어주기를 계속하고 있다.

8시 30분이면 책상 위를 치우고 교사의 낭독에 집중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무엇보다도 낭독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 읽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금요일 마지막 시간에는 독후활동을 전개하여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른다.

처음에는 책 선정을 교사 중심으로 정했으나 차츰 아이들이 함께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와 책을 고르는 수준까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단행본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11권 시리즈 '고양이 학교'를 낭독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호응이 대단하고 뒷이야기가 궁금한 아이들은 도서관을 연일 들락거리며 서로 빌려보려 하고 서점에서 구입하여 읽는 친구들이 늘어났다.

현재 우리 반에는 날마다 중간놀이 시간을 도서관에

들러 책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서로 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독서에 빠진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도서관 전용 책가방을 따로 가지고 다닐 정도로 독서에 흠뻑 빠진 친구가 많다.

우리 반의 독서기록장인 '독서식사수첩'은 낭독도서와 집에서 하는 30분 이상 독서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첩을 매일 알람장과 함께 검사하며 사탕 한 개를 칭찬으로 받는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들은 꾸준한 독서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의외의 소득은 아침 낭독으로 차분해진 분위기에서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8시 30분에서 8시 50분까지가 정해진 낭독시간 확보가 어려웠다. 서울시교육청 지침은 9시 등교인데 교육과정 운영상 수업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30분부터 낭독을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일찍 등교하는 학생이 많아졌다. 그래도 책에 대하여 대화 나눔의 시간이 부족한 점이 늘 아쉬웠다. 책에 대한 생각이나 주인공의 입장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금요일 창체시간으로 활용하다보니 즉각적 반응을 서로 나누지 못해 미진한 감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학기에는 '마음을 보듬는 독서'라는 독서치료 동아리를 신청자를 중심으로 (1기 7명, 2기 8명 진행) 운영했다.

책에 대해 공감하고 느낌을 나누는 활동에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변했다. 나는 교단을 떠나는 날까지 책읽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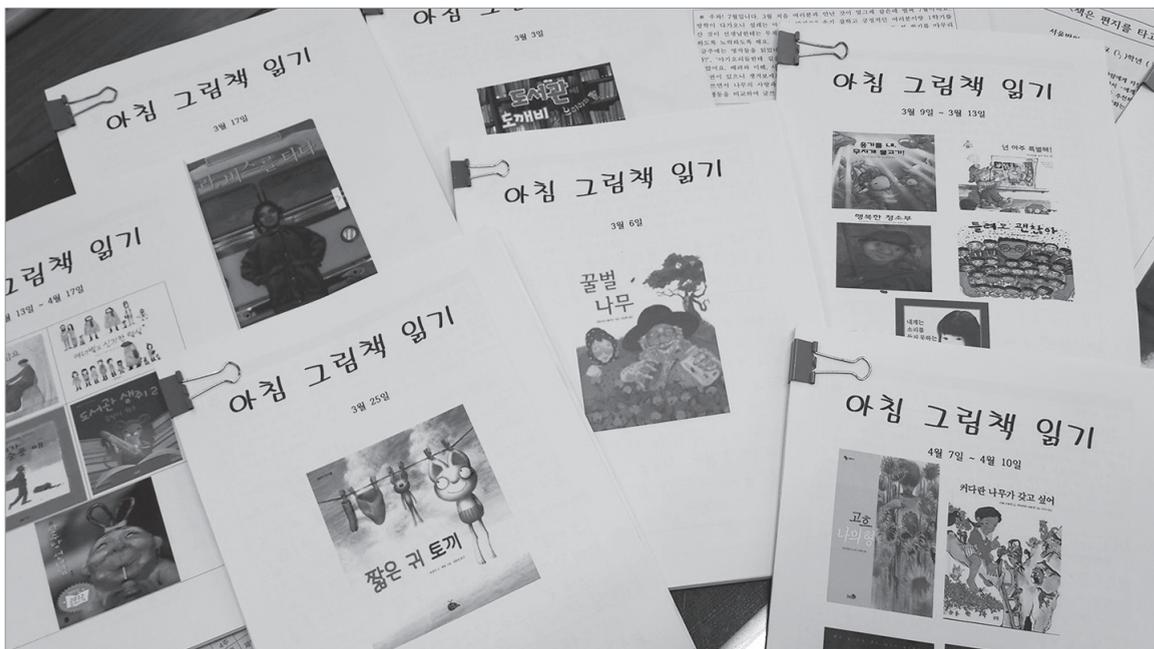


주기 활동은 계속 진행할 것이다. 교사의 '부지런함'을 조금 투자하여 얻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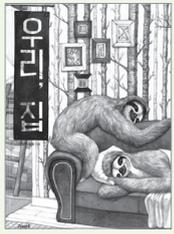
그리고 '마음을 보듬는 독서활동'을 학기 초 부터 진행해보고 싶다. 교실에서 보면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는 건강해 보이나 가만 들여다보면 불안하고 소동이 잘 안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성상 소그룹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모든 학생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10회를 1기로 하여 4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그 자료들을 정리하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공유하고 교사들과 함께 진행해 이론만 아는 교사가 아니라 직접 활용하는 자료가 되도록 하고 싶다. 가능하다면 이 경험을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해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다.

주변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날마다 읽어주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한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아이들이 집중하여 들어주고 좋아하며 다시 찾아 읽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기특한 생각이 든다. 오늘 우리 반 아이가 두꺼운 책을 읽고 있어서 살펴보니 미하엘 엔더의 '끝없는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이 책은 700쪽에 달하는 두꺼운 책인데 3학년 아이가 폭 빠져 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있었다. 책을 가까이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아이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결코 소홀이 할 수 없다. 아이들은 읽은 책을 내용을 다 안다고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아는 내용이라도 구수하게 읽어주면 훨씬 재미있어한다. 또 자신이 즐겨워한 책은 두고두고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는다. 그래서 읽어주기 한 책은 교실에 비치해놓는 것이 좋다. 책 읽어주기에 생각이 있다면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작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야기의 주제가 정말 다양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대화를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꺼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 2015 학도넷 겨울연수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그림책



## 우리, 집

진주, 진경 지음 | 고래뱃속 | 36쪽 | 2015년

학도넷 겨울연수 <읽고 생각하고 쓴다>에 참여하였던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그림책입니다. 적극적인 독자는 출판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독자가 원하는 출판을 독려하는 방법은 서평! 서평쓰기에 한 발짝 다가서는 열쇠를 찾는 시간. 내 머리로 읽고, 내 관점으로 생각하고, 내 언어로 쓸 수 있는 서평쓰기가 건강한 독서 환경을 만듭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동물원에는 각기 동물의 특징에 맞춘 그들만의 집이 있다. 목이 긴 기린 에겐 키다리 식탁이, 물놀이를 좋아하는 수달에겐 수상가옥이 있고, 빠른 치타는 러닝머신에서 언제나 신나게 달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동물들이 원하는 삶일까? 동물에게 동물원이란 '우리'일까, '집'일까? 생각해보는 그림책이다.

(조지환 / 서울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 쏘옥 뿌직

김규정 지음 | 바람의아이들 | 36쪽 | 2015년

동물들이 도토리를 '쏘옥' 먹고 '뿌직' 싸면서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씨앗 한 개가 숲을 이루는 대자연의 섭리를 땅에 엮드린 듯 볼 수 있는 작은 책이다. 아이들이 절로 소리 내서 읽게 만드는데 재밌는 의성어들이 즐거움을 더해 준다. 도토리를 다시 보게 하는 책이다.

(임경희 / 서울 상지초등학교 교사)



## 이제 곧 이제 곧

오카다 고 글 | 오카다 치아키 그림  
김소연 옮김 | 천개의바람 | 32쪽 | 2016년

이 책의 첫 인상은 예전에 어떤 그림책에서 보았음직한 느낌과 흡사해서 그다지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드럽고 세밀하게 살려낸 연필의 터치감과 <이제 곧 이제 곧>이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궁금함 때문에 책을 펼치게 되고 아기 토끼 보보의 순진무구한 천진함에 이끌려 어느 새 보보와 함께 뛰고 환호하게 되는 나를 만나게 된다. '봄'을 모르는 보보. '봄'이 미치도록 궁금한 보보. '봄'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은 겨우내 집안에만 있다가 이제 정말 놀이터로, 집 밖으로 나올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 갖는 호기심과 같을 것이다. 드디어 봄을 만난 보보처럼 이 봄, 아이의 손을 잡고 보보와 함께 봄을 찾으러 가게 될 것이다. (박정숙 / 화성 발안중학교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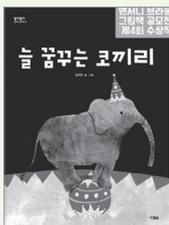


## 비에도 지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 글 | 야마무라 코지 그림  
엄혜숙 옮김 | 그림책공작소 | 40쪽 | 2015년

작가가 쓴 시를 자연을 배경으로 한 그림으로 녹여낸 그림책이다. 작가의 지나온 삶과 인생관이 그대로 글 속에 녹아 있어 강한 울림을 주는 어른을 위한 힐링 그림책이다. 비에도 지지 않는 강한 체력을 가지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며 욕심 없는 명칭이 되어 보자. 80년이 지나서 재평가 받는 이 시를 험한 세상에 지친 현대를 살아가는 그대들에게 권하고 싶다.

(김희선 / 용인 용동중학교 사서)



## 늘 꿈꾸는 코끼리

김지연 지음 | 현복스 | 40쪽 | 2015년

서커스단에서 화려한 모자를 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무표정으로 다른 먼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 길들여진 코끼리는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공연장이 아니면 우리에 갇혀 지냅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늘 자신이 지냈던 확 트인 초록의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풀꽃 가득한 초원에서 동물친구들과 대화하고 거닐며 노는, 캄캄한 초원에서 빛나는 별을 꿈꾸고 또 꿈꾸지요. 현실과 상상을 번갈아 가며 그림의 배경도, 코끼리의 심정도 대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마음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저버리는 일들을 다시 반성하게 합니다. 이야기마다 반복되는 어절이 동시를 읽는 듯 한 리듬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작가의 첫 그림책입니다. (이금화 / 서울 덕의초등학교 사서)



## 내 동생은 늑대

에이미 다이크맨 글 | 자카리아 오호라 그림  
서남희 옮김 | 토토북 | 40쪽 | 2015년

표지는 회색 늑대가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다. 한 손에 당근을 들고 분홍색 토끼 우주복을 입은 모습과 동글동글 맑은 눈빛이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아기 바구니 속의 늑대는 천진난만하고 그런 늑대아기를 돌보는 도트는 심통나고, 두렵고, 불안하다. 장면 장면하다 도트와 올피의 대조적인 모습은 아이 키울 때를 생각나게 한다. 또 아빠와 엄마의 사랑스러운 눈빛과 애정은 보고 있는 독자에게 도트를 좀 보라고 절실하게 말해 주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어느 날 도트는 정말이지 알미운

동생과 당근을 사러 간다. 그곳에서 도트는 마법의 가루처럼 새로운 매력을 우리 마음에 뿌려 놓는다. 쭉뺀 쭉뺀 선 털을 굵은 붓으로 그려 생생함이 전해지고, 도트, 올피, 곰의 말이 대화글로 표현되어 감칠맛을 더한다. (김경숙 / 보령 책사랑독서회)



## 식물은 어떻게 겨울나기를 하나요?

한영식 글 | 남성훈 그림 | 다섯수레 | 32쪽 | 2015년

이 책은 다양한 식물이 겨울에 저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지식 그림책이다. 자연환경에 해박한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과 자세하고 풍부한 색감의 그림이 돋보인다. 추운 겨울을 다루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식물을 대하는 시선에서 생명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느껴진다.

(이찬미 / 인천 부개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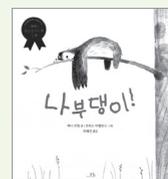


## 강냉이

권정생 글 | 김환영 그림 | 사계절 | 36쪽 | 2015년

권정생 선생이 피난을 겪었던 초등학교 시절에 쓴 시를 엮은 그림책이다. 어른에게는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평화'가 아이의 눈으로 보니 참으로 간단하고 쉽다. 아이는 참혹한 전쟁의 현실 속에서도 엄마와 형과 함께 토담 밑에 심고 키웠던 강냉이에서 평화를 끄집어낸다. 책을 가득 채운 굵은 선의 그림과 완화 느낌의 글씨체는 단순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윤문선 / 서울 고원초등학교 사서)



## 나부댕이!

제니 오필 글 | 크리스 아펠란스 그림  
이혜선 옮김 | 봄나무 | 32쪽 | 2015년

이 책 『나부댕이!』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소녀와 나무늘보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반려동물이 갖고 싶은 주인공 소녀는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엄마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단 "산책시키지 않아도 되고, 목욕시키지 않아도 되고, 먹이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물"을 찾아야만 합니다. 소녀는 사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하루 열여섯 시간 이상 잠을 자고, 나뭇잎을 먹고, 나뭇잎에 고인 이슬을 마시고 사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나무늘보를 반려 동물로 맞게 됩니다. 소녀는 나무늘보와 함께 뛰놀고, 숨바꼭질도 하고, 시합도 하고 싶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2015 학도넷 겨울연수 <읽고 생각하고 쓴다.>에 참여하였던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그림책입니다. 적극적인 독자는 출판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독자가 원하는 출판을 독려하는 방법은 서평! 서평쓰기에 한 발짝 다가서는 열쇠를 찾는 시간.

내 머리로 읽고, 내 관점으로 생각하고, 내 언어로 쓸 수 있는 서평쓰기가 건강한 독서환경을 만듭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나무늘보가 따라 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소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신만 외롭고 힘들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사이 소녀는 있는 그대로의 나무늘보를 인정하고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인정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각자가 가진 특성을 바꾸려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줍니다.

(구미숙 / 화성 행정초등학교 사서)



### 아무 데나 동물원

나디아 부데 지음 | 박영선 옮김 | 씨드북 36쪽 | 2015년

아이의 눈으로 주변 존재들을 동물에 빗대어 그려 낸다. 펭귄, 공벌레, 암탉 등 뻔하지는 않지만 공감되는 비유는 순수한 관찰력과 아이디어 상상력 덕분이다. 있는 그대로, 평등한 시선으로 닳은꼴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함께 따라가게 된다. 마지막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 하나. '뭣 하러 동물원이 있는 거지?' 자극적이지 않고도 밝은 색감, 투박하지만 살아 있는 표정에도 유쾌한 해학이 배어 있다. (박샘 / 서울 일원초등학교 교사)



### 생태 통로- 인간이 만든 동물의 길

김황 글 | 안은진 그림 | 논장 | 40쪽 | 2015년

생태통로는 동물들이 오래전부터 대대로 먹이와 서식지를 찾아다니던 길이 현대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의 편리함을 도모하면서 자연과 환경이 훼손되어 길 잃은 동물들이 인간이 만든 임시적인 생태통로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다. 표지에는 주인공 하늘다

람쥐가 여유롭게 나무 길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시작하여 매연을 뿜어내며 달리는 자동차를 뻔히 쳐다보는 동물들의 모습이 책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어두운 색채에서 자연의 색으로 표현하여 주위 환경의 분위기와 동물들의 표정에서 자아내는 마음을 읽을 수 있지만 문체와 문장표현이 매끄럽지가 않아 아이들이 재미있게 폭 빠져들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인간의 삶속에는 항시 자연과 함께 서식하는 동물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고 자연보호 및 로드 킬에 대해 토의도 해볼 수 있는 좋은 환경 책이다. 또 책 뒷면에 생태통로의 종류, 역할 및 계기에 대해서도 잘 설명되어 있어 환경의 중요성을 나타내주는 정보용 글이 아주 인상적이다.

(이영인 / 안성여자고등학교 사서)



### 내가 책이라면

주제 조르즈 레트리아 글 | 안드레 레트리아 그림 | 임은숙 옮김 | 국민서관 | 64쪽 | 2012년

이 책은 늘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책이 의자가 되고, 충전기가 될 수 있는 표현은 책을 통한 위로가 잘 드러나 있다. 그림과 글의 위치가 시선과 잘 연결이 되어 집중하여 읽을 수 있어 공감을 준다. 그림의 색채가 안정감을 주며, 편안한 느낌이지만 어린이들이 선뜻 좋아할 만한 선명한 색채는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책의 다양한 매력을 반복된 리듬감과 글과 그림의 여백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이 책은 아버지가 글을 쓰고 아들이 그림을 그린 책으로 제2회 CJ그림책애니메이션 선정된 작품이다.

(김지순 / 성남 창곡여자중학교 사서)



### 거리에 핀 꽃

존아노 로슨 지음 | 시드니 스미스 그림 | 국민서관 | 32쪽 | 2015년

거리에 핀 꽃은 세 아이의 아빠인 존아노 로슨의 실제 경험을 시드니 스미스가 그림으로 펼쳐낸 글 없는 그림책이다. 그림책의 시작은 색을 잃어버린 도시에서 한 아이만이 유일하게 색을 가지고 아빠와 함께 걷고 있다. 아파 아빠와 함께 장을 보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중인 것 같다. 유일하게 색을 가진 아이는 아빠와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펴봄여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리에 핀 꽃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작은 보물들을 죽은 새, 공원벤치에 누워있는 남자, 목줄에 걸린 개,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나눠주며 작지만 따뜻한 온기를 세상에 전해준다. 소녀가 꽃을 나눠줄수록 소녀의 주변은 점점 더 따뜻한 색으로 가득 찬다. 글이 없는 그림책은 때로는 주제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책은 들꽃이라는 소재와 색의 확장을 통해 '작은 거, 작은 사람, 작은 몸짓의 소중함'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큰 반전이 없는 이야기임에도 다양한 프레임을 사용하여 지루하지 않게, 소녀의 발걸음을 따라 이야기를 읽어나갈 수 있다. 거리에 핀 꽃은 아직 글을 모르는 어린이부터 아이를 둔 부모님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을 아이와 함께 읽었다면 아이와 함께 거리로 나가 걸으며 거리에 핀 꽃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동안 잊고 지나친 작지만 소중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하며 여유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돌아보길 권한다.

(우지희 / 서울 노원구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랑도서관 사서)



# 전국 어린이 독서감상문 대회 안내



**대상** 전국 어린이 **대회 기간** 2016년 3월 14일 ~ 6월 17일

**독서감상문대회 참가 내용** 200자 원고지 2매 이상  
초등 저학년 / 중학년 / 고학년 부문  
단체상 10명 이상

**① 온라인 응모** ★ 학교, 이름, 전화번호 필히 기재

응모방법 : 온라인 서점 메일 접수(개인응모만 가능)

접수 : kids@interpark.com 접수일자 : 2016년 5월 9일 ~ 6월 17일  
(지도교사가 있을 경우 선생님 성함과 전화번호 기재)

**② 우편접수** ★ 학교, 이름, 전화번호 필히 기재

응모방법 :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접수(200자 원고지 사용) 접수일자 : 2016년 5월 9일 ~ 6월 17일

주소 : 경기 파주시 회동길 329 2층 고래가숨쉬는도서관 문의전화 : 031-955-9680(독후감대회 담당자)

단체 - 학교, 학생이름, 선생님 성함, 전화번호 필히 기재

개인 - 지도교사가 있을 경우 선생님 성함과 전화번호 기재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교사

### 내 생을 아름답게 해준 도서관들

김예선(강화중학교 사서교사)

지금의 나는 도서관에 있다. 옛날의 나도 도서관에 있었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서로 다른 도서관들이 내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첫번째 도서관은 오빠 방 책상 옆 책장이었다. 비록 도서관은 아니지만 어릴 적 도서관은 혼자 가기엔 너무 멀었고, 맞벌이 부모님과 다정하지 않은 오빠는 날 도서관에 데려가 준적이 없었다.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들어와 킁킁한 방이 무서웠던 나는 책상 아래로 기어 들어가 그 옆에 꽂힌 책들을 읽었다. 당시 우리 집 책장에 꽂혀있던 전래동화 전집이나 과학 전집은 가족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함께 있어 주었던 친구였다.

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며 도서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집에 책이 100여 권이 있었다고 하면 학교도서관에는 수천 권 이상, 그리고 공공도서관에는 수 만권이 있었다. 예쁜 표지의 책들도 좋아하고 이상한 책 욕심이 있었던 나는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했다. 특히 담임선생님께서 독서를 좋아하시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시키셨던 6학년 때는 선생님께 보여드리려는 마음이 앞서 매일같이 책만 읽는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어려워 보이는 책을 고르고, 수준에 맞지도 않은 책을 읽어 좋지 않은 습관을 들였다는 것에 조금 씩씩하기도 하다.

중학교 때까지 도서관은 책을 빌리고, 읽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선 좀 더 편한 자세로 쉬며 컴퓨터도 하고, 만화책도 읽고 음악을 듣기도 하며 친구들과 공부할 하러 간다는 명목 하에 놀러 다녔던 신나는 곳이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도서부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며 도서관은 좀 더 진지한 존재로 다가왔다. 단순히 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입부했던 나에게 당시 잘 운영되었던 도서부는 도서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었다. 다른 친구들을 위해 매일 봉사하고, 책을 독자로서가 아닌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보게 되고,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도서관의 역동적인 모습 그리고 도서관을 살아있게 하는 나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도서부라는 것이 자랑스러

웠고, 도서관이 사랑스러웠다. 수학교육과를 희망하며 이과 공부를 하고 있던 고3의 5월에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골랐던 '세계 도서관 기행'이라는 책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세계의 여러 도서관들과 그 속에서 꿈을 키우는 사람들. 이전까지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나에게 벼락이 치듯 '사서'라는 꿈이 생겼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도서관을 나처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꿈이었다. 급하게 진로 희망을 바꾸고, 공부하는 내용도 바뀌 결국 나는 문헌정보교육과에 입학하였고, 대학 공부를 하는 내내 행복했다. 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면서 어렵기도 하지만, 한 발짝씩 꿈에 다가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사서교사로 학교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 이제 막 시작하여 어리숙하고 내 이상대로 실현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지만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조용히 도서관을 한 바퀴 둘러보면 어릴 적 도서관에서 느꼈던 행복이 새록새록 피어나 지금의 시간들이 소중하게만 다가온다. 내가 도서관에서 느꼈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고 싶어 가슴이 벅차온다.

난 도서관에 있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도서관에 있을 것이다. 편안함과 두근거림이 공존하는 도서관이 내 삶을 아름답게 피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부모

### 날마다 새로운 책읽어주기

허남정(춘천 소양초등학교 학부모)

매주 목요일 아침,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러 학교에 갑니다. 아이가 있는 교실에 들어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내 아이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기에 용기를 내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 중순, 학부모 총회 때 만난 같은 반 어머니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모두 좋아라 해주셨고 아이들이 도통 책을 읽지 않는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담임선생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주위에서는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며 조심스럽게 말리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책읽어주기 봉사를 같이 다녔던 경험이 있는 터라, 아이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겠다고 당장 그 다음 주부터 그림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주어진 20분 동안 아이들이 책에 푹 빠져들 수 있기를 바라며 목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검증된(아이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책으로만 가져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가 전학을 오기 전에 다녔던 학교에서 '책읽어주기 어머니 동아리'를 이끌었던 경험이 큰 힘이 되었지요.

여자 아이들은 그런 대로 잘 들어주는데 남자 아이들은 교실 뒤에서 카드 게임을 하느라 정신없을 때가 자주 있어요. 어떤 날은 몇몇 아이들이 교실 앞쪽에 진을 치고 카드삼매경에 빠져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리를 내달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속에 낀 우리 아이에게 눈치가 살짝 보이기도 하구요. 교과서보다 카드 챙기기가 우선인 아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하고 열심히 책을 읽습니다.

언젠가 미하엘 엔테의 작품 '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을 읽을 때였어요. 밝은 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천국 문이 열리고 그림자들의 공연이 시작되는 장면을 읽을 때 한쪽에서 '와~아!' 하는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소리 낸 아이를 보고 한 친구가 "너, 어린이 같애." 하며 놀려댔어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져서 멈췄 했는데 마침 교실 뒤에서 함께 들어주시던 선생님이 "친구들 아직 어린이가 맞아요."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침이라 읽어줄 책의 소재나 주제, 내용을 몇 번이고 고려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 걸림 없이 책을 가져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읽어줄 책이 딱히 떠오르지 않을 때는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창작그림책을 좋아하는 저와는 반대로, 사회과학이나 역사인물 위주의 그림책에 관심이 많은 사서 선생님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림책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책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기'나 '파란 셔츠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반응이 꽤 좋았어요.

가장 신났던 때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책을 읽어주러 갔던 가을날이었어요. 목요일 아침이면 늘 시간에 쫓겨 막히는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발을 동동 굴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니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배낭 하나 달랑 매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학교로 향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 날은 목소리도 더 힘차게 나오고 아이들에게 좀 더 뽀뽀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오는 길에 잘 익은 과일처럼 물든 나뭇잎도 줍고 그야말로 가을날의 호사를 누렸지요. 지나고 보니 그런 선물을 준 건, 책 이야기를 보고 들어준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책 읽어주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심 궁금하기도 하지만 한 번도 물어본 적

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학교 공개수업을 참관 하러 갔다가 흐뭇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었는데 소감을 말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어느 어머니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하는 선생님의 물음에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은석이 어머니요!” 하는 겁니다. 단지 얼굴이 낮이 익어서일까요, 아닐 거라 믿어요. 부디, 바라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나누었다는 느낌을 받은 거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될 테고 아이들은 곧 초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겠지요. 몇 번 남지 않은 시간, 어떤 책으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책읽기 시간을 꾸려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녹여줄 아름다운 이야기, 서로에게 추억을 되살려줄 사랑 가득한 이야기를 찾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이제 곧 새 돛을 달고 항해를 시작하게 될 아이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줄 멋진 이야기들을 준비하려 합니다. 훗날, 누군가 나에게 책을 읽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기억만으로도 행복한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생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나는  
야외도서관 활동**

민현영(청주 양청중학교 3학년)

나에게 도서관은 두껍고 재미없는 책이 많은 그저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양청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나에게 도서관은 그저 책만 있는 곳이 아닌 책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그런 계기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독서수업에서 배운 그림책 읽기와 야외 도서관에 참가한 경험인 것 같다. 독서수업에서 처음 배운 것은 그림 책 읽기이다. 그런데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그림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학교 근처에 있는 오창 호수공원에서 주말에 야외도서관을 해보자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렇게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데에서 과연 책 읽기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관심하게 지났다. 다음해 5월 나는 도서부인 친구를 따라 우연히 야외도서관에 가게 되었다. 열걸에 간 그곳에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분명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 야외도서관이 보란 듯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던 것이다. 야외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너무 몰려와 책 읽어줄 사람이 부족할 정도였다. 나는 친구들을 도와서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읽어 주었다. 애기들이 처음에는 글과 이야기에 집중을 잘하나 싶었지만 글보다는 그림이 좋았는지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독서수업에서 그림책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 했는데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그림을 읽고 느낌을 말하는 것이 신기하고 부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외도서관은 부모님들이 좋아 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책을 읽고 책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대견스러운 것 같았다. 나도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집중해서 듣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수가 없었다.

야외도서관은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었다. 그런 야외도서관은 내게 다시 한 번 도서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였다. 오창 호수공원도 집 근처라 전에는 그냥 놀러오던 곳이었었는데 이번에 야외도서관 활동을 하니 공원과 사람들이 새롭게 보였다. 나도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게임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느라 책과는 친해질 기회가 없는 데 이런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책과 접하게 해줄 수 있어서 보람 있고 재미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근처 노인요양시설에 가서 그림책을 읽어 드리며 말벗해드리기를 했다고 한다. 기회가 된다면 나도 용기를 내어 참여해 보고 싶다. 왜냐하면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나는 것이 생각보다 즐겁고 보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생

**처음으로 만난 재미있는  
도서관 이야기**

김찬호(서울 연북중학교 3학년)

나는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조용함’, ‘쌓여 있는 책’ 등 친근하지 않은 것들이 생각났다. 하지만 지금은 도서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2학년이 되면서 국어 선생님께서 나를 도서관에 들어오라고 권유하셨다. 평소에 가진 도서관에 대한 생각 때문인지 금방 내키지는 않았지만 굳이 거부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권유를 받고 활

동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처음에 권유를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도서관은 지루할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었다. 역시나 초반에는 지루해 하면서 건성건성 도서관 활동을 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봉사도 의무감으로 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있는 책도 읽고 시도 읽고 쓰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단지 도서관이 지루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이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월 ‘이 달의 시’가 게시되는데 시를 읽고 감상문도 써서 제출하고, 미니 토론으로 주어진 주제에 내 생각을 붙여 놓기도 한다. 일주일에 한 번 드나들던 도서관이 이제는 매일 들러 보는 곳이 되었다.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가기도 하지만 혼자서 가더라도 전혀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다. 과제를 해야 할 때, 잠깐 쉬고 싶을 때 방과 후 마땅히 시간 보낼 곳이 없을 때 나는 늘 도서관에 있다. 만약 내가 이 도서관에 들지 않았더라면 도서관은 내게 영원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이었을지도 모른다.

선생님께서 나에게 독서동아리에 들어오라고 권하셨을 때처럼 친구들에게 권한다면 친구들 중에는 쉽게 승낙할 친구가 있을까? 만약 나의 권유를 거절한다면 그건 내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을 그 친구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너희가 국어 선생님께서 하신 권유를 거절한 이유가 도서관이 지루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단지 편견일 뿐이야”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싫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은 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정말 친한 친구라면 나는 끝까지 설득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의 이런 재미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친구들아, 도서관은 조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루한 곳은 아니야. 오히려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가지가지의 재미가 있는 곳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한들 도서관에 오고 싶어 하는 애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나와 같은 경험은 말로 하거나 누군가 강요한다고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다시 친구들에게 나의 경험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한다. 나는 오늘도 숨어 있는 도서관의 매력을 찾고 나만의 재미를 위해, 더 나은 도서관 활동을 위해 도서관에서 논다.

## 학도넷 소식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 학도넷 행사

- 2015년 12월 9일 2015 학도넷 '함께 읽는 즐거움' 사례 공모 선정 발표
- 2015년 12월 15일 소식지 겨울호 발행(총권 37호)
- 2015년 12월 16일 2015 학도넷 후원의 밤
- 2015년 1월 12일 도서관 이용자 확산을 위한 시민워크숍 '예술 도서관을 허하라'
- 2016년 1월 11일~13일 2015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읽고 생각하고 쓴다."

### 신입회원 (2015년 12월~2016년 2월)

정회원 : 김윤진, 박은경, 윤은경, 조원희, 조원희

준회원 : 조지환

웹회원 : 구본희, 김윤초, 김혜영, 바이예듀, 박지예, 이재훈, 이지은, 정지웅, 조현중, 최혜랑, 황수정

### 회비 및 후원내역 (2015년 12월~2016년 2월)

#### 정회원 회비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영미 구미숙 권도경 김미숙 김경숙 (보령) 김대경 김선영 김심함 김영신 김은영 김정윤 김정혜 김하나 김호숙 마민희 박미영 박준섭 백경숙 백연주 선보배 성주영 이혜진 송경영 송숙영 송추향 송혜영 신은미 신정화 신현란 유서연 유정원 윤남미 이유정 이 현 이현애 임경순 임민욱 정수연 정영희 주상태 차진미 채재현 최선옥 허지연 허지은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향미 김경숙 김광재 김숙경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중성 김진희 김진희 (관악)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 샘 박영옥 박정해 박지연 변영이 백화현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문숙 이영주 이찬미 장범진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량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허경림 황봉희

·매월 3만원 : 도서출판 북극곰

·연회비 : 김봉화(10만), 류주형(12만), 변영이(12만), 조원례(12만), 정재연(10만)

#### 준회원 회비

·매월 : 김민형(2천) 김송요(2천) 김송현(2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이재희(2천) 장버리(3천) 장한솔(2천) 최유미(3천)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크리스마스 선물, 하하하 장난이야! 곰아 놀자! 곰곰아 괜찮아?(북극곰)/모두에게 배웠어-고미 타로의 성장수업(천개의바람)/세계 지리, 어디까지 아니?(고래가숨쉬는도서관)/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살림터)/꽃을 빼는 할머니(나한기획)/거꾸로 다니는 아이(한울림어린이)/테오도루 24번지(문학동네)/너는 하늘을 그려, 나는 땅을 그릴게(토토북)/오빠랑 사이 좋게 지내는 건 재미없어(길벗어린이)/내 짝공의 비밀(사계절)/코딱지는 조금 외롭고 쓸쓸한 맛(사계절)/바느질 소녀(사계절)/학생사용설명서(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우리 신화(한권의 책)/10대와 통하는 사회 이야기(철수와 영희)/세계지리, 어디까지 아니?(고래가숨쉬는도서관)/옆집아이보고서(한우리북스)/한우리단편문학상 '첫' (한우리북스)/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 알아?(웃는돌고래)/책이 사라진 날(한솔수북)/영당이에 뽀뽀(청개구리)/우주가 있는 곳(청개구리)/홍련(청개구리)/하느님은 힘이 세다(청개구리)/야단법석 부처님 박물관(나는책)/처음 만나는 직업책(미세기)/짜통샘과 시바클림(시공사)/스크라테스가 가르쳐 준 프로젝트(휴머니스트, 김미희)/곰아, 놀자!(북극곰)/하하하, 장난이야(북극곰)/세밀화로 그린 보리어린이 나무도감, 식물도감, 곤충도감, 바닷물고기도감, 동물도감(보리)/나무 나들이도감, 갯벌나들이도감, 바닷물고기 나들

이도감(보리)/인문학으로 만나는 몸공부(글라이더)/노자1 진리는 말하여질 수 없다, 노자2 문밖에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안다, 노자3 학문이 끝나는 곳에 도가 있다(글라이더)21세기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다산의 독서전략(글라이더)/똑똑한 1학년(미세기)/아빠와 함께 그림책여행(북극곰)/맞아 언니 상담소(비룡소)/논다는 건 뭘까?(미세기)/세계를 바꾼 17가지 방정식(사이언스북스)/잃어버린 자전거(고래가숨쉬는도서관)/가르쳐 주세요(비룡소)/두근두근 한국사, 2(양철북)/수상한 학원(북텐토)/아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북극곰)

###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고래가숨쉬는도서관 겨울호(고래가숨쉬는도서관)/개똥이네 놀이터(보리)/어린이문화연대/계간 우리교육 봄호

**\*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 2015 학도넷 후원의 밤 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저녁 5~10시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가는 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극단 민들레 송인현 선생님 연출로 '꽃할머니' 공연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구요. 그림책읽어주는 작가 김인자 선생님의 책읽어주는 맛같은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책읽어주기로 이야기들려주기로 아름다운 결연을 실천한 사례공모에 전국에서 보내온 많은 사례들에 시상했습니다. 이어서 책읽어주기로 아이와 어른, 어른과 어른이 서로 등 두드리며 손잡아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부상으로 주어진 책읽어주는 의자를 선보이기도 했지요. 멀리서 가까이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의 밤 후원금으로 학도넷에 응원 보내주신 분들>

·2만원 강수경(사서교사), 강애라(미양중), 강정미(바느질책수다), 권규, 김은정, 김정숙, 박샘, 박세지(광명안서초), 박정해(양동중), 신정임(반포중), 안덕희(소사초), 안웅덕(부천계남초교사), 여희숙(도서관친구들), 윤병일(낙산), 이금주(대구대진중), 이미영(인디자인), 이은영(중앙기독교), 이창섭(바람의아이들), 이해연(금곡여고), 이현숙(금곡여고), 이현희(우리자리공부방), 이혜진, 임수미(부천계남초학부모), 임오남(길꽃), 장부자(푸른 들도서관), 장양지(길꽃), 정영화(성산동개동이네책방), 조병범(보리출판사), 조원희(충주칠금초), 염효경(수원지동초), 최진(천개의바람), 최소형, 한지연(북트러가족인문학도서관), 후원의 밤 (무명씨)

·3만원 김호숙(책마중)

·4만원 김은영(학교도서관문화살림), 김숙자(바느질책수다), 백창우(굴렁쇠), 부금희(어린이책시민연대), 송추향(보리), 안희정(푸른 들도서관), 윤혜린(바느질책수다), 이경자(학교도서관문화살림)

·5만원 공공출판사, 백화현,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옛꿈터(주나미, 고강민, 고시연), 우리교육, 유문숙(보리출판사), 윤희윤(영화읽기), 이경숙(책마중), 이영주(서울연가초), 조희정(양철북),길꽃책마중, 파주평화도서관(평화를 품은집)

·6만원 민복례, 이정옥(서정초), 임혜녀(학교도서관문화살림)

·8만원 전혜원(반원초)

·10만원 (사)행복한아침독서, 김혜원(학교도서관문화살림), 김홍식(서해문집), 문학동네, 박영옥, 변영이, 어린이문화연대, 오승현(글로벌), 오현애(박물관이야기), 이민정(사계절), 이용훈(서울도서관관장), 전국학교도서관담당서무모임, 청소년출판모임, 어린이문학팀(학교도서관저널), 홍상영(우리민족서로돕기)

·20만원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신현란(면목고), 안재희(운사모),

양혜정(강남교육청), 청소년출판협의회, (주)학교도서관저널

·50만원 (주)창비,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100만원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후원의밤 도서후원 행복한 동보댄서, 독서공책(개암나무)/ 동화달력(비룡소)/ 산책, 꿀벌가문 족보제작 프로젝트(서해문집)/ 내 진짜진짜 소원은(파란자전거)/ 학교도서관저널(학교도서관저널)/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네집(보리) 고미 타로의 성장 수업 모두에게 배웠어 나의 배움책(천개의바람)

### 도서관 이용자 확산을 위한 시민워크숍 했습니다.

·프로젝트 명 : 예술도서관을 허하라!

#### ·사업목적

흔히 접할 수 없는 예술영역을 지역 창작공간과 연결하여 예술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나아가 창작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가진다.

도서관을 떠난 현장과의 만남을 통해 문화융합 기반을 형성한다. 창작공간의 전문성을 살려 예술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의 다양성, 전문성을 높인다.

#### ·사업내용

예술인문학 탐험 : 예술 장르를 활용한 인문학 강의

예술사람책 : 예술창작자들의 작품세계 탐방, 토크쇼 진행

창작의 시간 : 작가와 함께 하는 작업

#### ·세부 진행 계획

지역 : 금천구, 금천예술공장 인근 구로구, 영등포, 관악구 등

대상 : 누구나. 선착순 12~30명 내외

예술인문학 탐험	예술사람책	창작의 시간
이원호 작가와 함께하는 진품명품전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초빙 토크쇼	홍영인 작가와 함께하는 바느질
2015년 12월~2016년 2월까지 진행		
총 3회 2~30명	발표 및 정리	발표 및 정리(4~5시)

### 2016 학도넷 만남과 바람 진행합니다.

#### <문화재를 통해 본 한국 근현대사>

·목적 : 학교도서관 주인(학생, 교사, 사서, 학부모)들이 서로 만나 대면의 장을 마련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마당을 마련하고 종이책 안의 세상을 현장으로 찾아 나선다. 도서관운영자들의 문화행사 기획력에도 기운을 불어넣는다.

·때 : 2016년 만남과 바람 4, 5, 6, 9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진행.

·이공이 : 권기봉 선생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SBS기자(SBS특종상, 삼성언론상-기획취재 부문)/ 저서 : 《권기봉의 도시산책-서울의 일상, 그리고 역사를 걷다》, 《다시, 서울을 걷다》,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 등

###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회 되어주십시오.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을 발표했던 날인 4월 11일 (\*\* 행사는 임시정부 설립을 위해 최초로 모인 날인 4월 9일 토요일 실시)에 1만의 추진위원 이름으로 국회 잔디광장에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출범 및 대한민국헌법의 날 축제'를 가질 예정입니다.

####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 가기 <http://goo.gl/forms/xfgdHTGfUk>

문의 : 010-4215-7259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